

성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 포항지역을 대상으로 —

A Study of Marital Satisfaction by Sex and Sex Role Identity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김 명 순
포항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조 교 수 이 주 옥

Dept. of Chil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Student; **Myoungsoon Kim**
Dept. of Preschool Education, Pohang Junior College
Associate Professor; **Juok Lee**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x and sex role identity on marital satisfaction.

The short-form Bem Sex Role Inventory (BSRI) and 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 were administered to the married men (n=90) and women (n=130) in Pohang City.

The data were analysed by two-way ANOVA and the Scheffé method of multiple comparison.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Marital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sex role identity rather than to sex: The androgynous group reported the highest marital satisfaction scores, whereas the undifferentiated group did the lowest scores.

2. There was no significant sex difference in marital satisfaction scores among the masculine, androgynous, and undifferentiated groups except the feminine one.

Only in the feminine group, males who had high femininity scores reported high marital satisfaction scores, whereas females who had high femininity scores reported low marital satisfaction scores.

I.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가족관계의 연구에서는 핵가족의 증가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바, 특히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부부의 정서적 구조를 파악하려는 결혼만족도 연구는 그 성격상 정확히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김혜선, 1982) 부부간의 만족여부가 부부 자신들만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인격형성에 있어서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할 때,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는 청소년 비행, 이혼율의 증가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등, 가정에서 과급되는 많은 문제가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가므로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김혜선, 1984).

한편,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가정에 대한 가치 및 태도, 육아, 인간의 삶에 있어 결혼의 역할, 노동을 통한 자기표현의 가능성등에 대한 신념이 변화했다. 이같은 태도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들의 역할참여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민경신, 1986 : 박영신, 1984).

따라서 여성운동과 최근 심리학적 이론에서의 일반적인 주장은 전통적 성역할들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Bem, 1975 : Bem, Martyna & Watson, 1976; Spence et al., 1975)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유리하고 융통성이있는 새로운 성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등장한 '심리적 양성성'이라는 새로운 성역할개념(Bem, 1974 : Heilbrun, 1973)은 전통적 성역할개념에 대하여 도전을 꾀하는 남녀 모두에 대한 바람직한 성역할개념으로서 제안되었다. 전통적으로 성유형화된 인성특질은 현대의 생활과 사회적 관계의 요구에 맞지 않을 뿐더러 남녀관계에 갈등을 초래하여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표현적이지 못한 남성은 심리적 친밀감과 상호감정적 지지를 요구하는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의 현대적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성장한 여성은 현대의 결혼생활에서 미숙하고 주관적이며 감정적인 여성적 기질로써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남성에게 완전한 상대가 될 수 없다(Yorburg, 1974, 1975 : 민경신, 1986인용).

이렇듯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가족관계의 유지에 있어 중요한 바 그들의 성역할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부부의 성역할과 결혼만족도를 관련시킨 연구가 필요하다. 더구나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이 성역할과 결혼만족도 각각에 치중되어 행해져왔고 성역할과 결혼만족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라할지라도 대부분이 성역할태도를 위주로 행하여져 왔다. 즉,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양극으로 분리시키면 전통적 태도로, 역할내용을 성에 의해 고정시키지 않고 융통성을 두어 함께 수행하는 역동성을 지향하면 근대적 태도로 규정하였을뿐(김명자, 1985 : 박태은, 1983 : 이정련, 1983, 1987 : 이형실, 1985 : 정승혜, 1988 : 최규련, 1984) 새롭게 등장한 '심리적 양성성' 개념에 부응하여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을 남녀 모두에게 적용시킨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과 성역할 정체감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관계-특히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물학적 성이라기보다는 성역할정체감유형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알아보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 가지고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결혼만족도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결혼만족도는 성역할정체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성역할

성역할이란 한 개인이 그가 속해있는 문화권내에서 남자 또는 여자로서 특징 지워질 수 있는 여러 자질, 혹은 성형화과정을 통해서 성별에 따라 습득하게 되는 성격특성, 태도, 선호경향, 행동등을 합하여 일

권은 말이라 볼 수 있는 바 성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개념들이 사용되어 왔다.

성역할규범(sex role standard)이란 사회에서 남녀간에 차이를 두어 명명하는 모든 행동을, 성역할고정관념(sex role stereotype)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녀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특성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를 의미한다.

성역할선호(sex role preference)란 남녀중 어느 한 성과 관련된 행동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욕구 또는 그러한 행동 및 태도이다. 성역할채택(sex role adoption)은 남녀중 한 성의 행동특성을 실제로 채택하는 것으로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이며, 성역할정체감(sex role identity)이란 개인의 타고난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역할로서 그 역할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반응특성을 일컫는다(이주옥, 1987).

한편 성역할습득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전통사회에서는 선천적, 생래적 성차가 사회적·문화적으로 강화되어 남성성·여성성 고정관념이 확고하게 성립되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어 개인의 개성은 그 안에 매몰되는 현상을 빚어왔다. 달리 말하면 한 사회가 형성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개인의 특성을 말살하고 개인을 남성다움·여성다움의 틀속에 끼워 맞추었다.

그러나 성역할구분의 역기능과 여성해방론자들에 의한 평등주의적 성역할개념이 전파됨에 따라 최근에는 가족역할에 대한 견해도 바뀌어가고 있다. Oakley(1974)는 가족의 작업규범과 역할내용을 변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현재의 주부역할도 변화중인 장치의 한 부분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가족내에서의 역할구분을 역동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호로 보는 견해로까지 발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Scanlon & Fox, 1980; 정승혜, 1988인용).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부당한 사회인식 및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어느 한 성에 강요하던 과거의 성역할개념도 차차 평등주의적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남성성과 여성성

을 단일차원의 양극 처럼 생각하여 남성적인 사람은 동시에 여성적일 수 없으며, 여성적인 경우에도 동시에 남성적일 수는 없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Bem(1975)에 의해 '심리적 양성성(psychological androgyny)'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양성성은 한 개인이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징을 동시에 지니는 것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서로 독립적이고 상호배타적이 아닌 관계에 있으면서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차원으로서, 인간은 누구나 그들의 각각의 상황적 여건에 따라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일 수 있으며, 도구적이거나 표현적일 수도, 독단적이거나 순종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양성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성성을 매우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기까지 한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점차로 많은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정진경, 1986; Bem, Martyna, Watson, 1976; Spence, Helmreich & Stapp, 1975; 이주옥, 1987인용).

2. 결혼만족도

일반적으로 결혼에 대한 평가기준은 행복과 안정성으로 대별되며 행복은 성공, 만족, 적응의 형태로 연구되고 있다(Hicks & Platt, 1970).

또한, 학자들의 정의에 따라 결혼만족의 정의도 각각 상이한 바, 정승혜(1988)는 Burr(1979)를 인용하여 두가지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박태운(1983)의 정의와 유사하다.

첫째, 결혼만족도란 태도적 혹은 주관적 측정이라고 보다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그가 실제로 받는 보상의 일치정도에 대한 측정 혹은 개인의 기대와 결혼 결과사이의 비교이며, 둘째로는 개인이 결혼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등의 주관적 감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김명자(1985)는 결혼만족도를 '결혼생활의 실제와 기대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 만족정도'라 하였으며, 유영주(1979)는 '결혼생활 전반에 있어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Burgess & Locke(1945)도 개인이 그들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만족하는가에서부터 불만족하는가에 이르는 연속

선상의 태도로써 결혼만족도를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Roach(1975)가 고안한 MSS (Marital Satisfaction Scale)에서의 결혼만족도개념은 주어진 시점에서 자기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시간적 차원에 따라 인식(perception)하는 것으로, 얼마만큼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하는 선호(favorability)의 태도이다.

이와같이 자신의 결혼에 대한 태도의 개념은 각 개인의 결혼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능한 인식을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태도로써 결혼만족도를 보는 것은 종래에 비교적 고정된 속성이나 행동형태로 결혼의 적응·성공·행복을 측정하려 했던 연구와는 매우 대조적이다(이인수, 1985).

3. 성역할과 결혼만족도

성역할과 결혼만족도를 직접 관련지은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역할, 결혼만족도 각각에 대해 치중되어 행해져오다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성역할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선행연구들간에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정승혜, 1988).

Scanzoni(1975)에 의해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체계적인 척도가 발전되었는데 그는 성역할태도, 경제적 요인 및 결혼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에서 성역할 태도 자체와 결혼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대적 역할태도를 가지고 있고, 결혼만족도가 높으므로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는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Combs(1966)도 유사한 태도를 가진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더욱 만족한다고 보고하였는데 Nordlund(1978)의 주장과 유사하다(정승혜, 1988인용).

양성적인 사람은 특수한 인간 상호관계의 구조에서 적응력이 있고 융통성이 있으며 더 효율적인 바(Bem, 1974, 1975; Spence, 1975) 결혼의 상황이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혼만족은 개인의 건강과 안녕에 직결된다. 이렇게 심

리적 건강과 안녕이 인간상호관계의 만족을 성취하는데 대한 행동의 유익한 측면으로 정의되어 진다면 Bem의 의견대로 전형적으로 성유형화된 사람들은 결혼생활에서 만족을 꾀하는데 확실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민경신, 1986).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편보다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더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정도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임으로써 가족구조중 역할구조와 정서적 구조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이형실, 1985). 김명자(1985)의 연구에서도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의 전체적 경향이 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 남성은 전통성을 고수하는 반면, 여성은 전통성에서 탈피하여 근대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이때 성역할태도가 남성의 결혼만족도에는 의미있는 변수로써 작용하지 않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여성이 전통적 가족역할관을 지닐수록, 남녀역할에 대해 전통적 고정관념을 지닐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성역할태도에 주부의 직업유무를 첨가하여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박태은(1983)의 결과도 이를 지지한다. 즉,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이면서 전문직을 가진 주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근대적 태도를 갖고 비취업인 주부의 결혼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한편 중류층부부 113쌍을 대상으로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고,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핀 정승혜(1988)는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남편들이 부인들보다 더욱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서만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편이 전통적 태도를 갖고 있을 때보다 근대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규련(1984)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바 남편이 부인보다 더 전통적인 경우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낮았다.

다만 민경신(1986)의 연구가 결혼만족도를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시켜 행해졌는데 그 결과 도시 주부의 성역할정체감은 양성적·남성적·여성적·미분화유형에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도시주부의 성역

할 정체감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있는데 양성적 집단은 미분화된 집단과 남성적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여성적 집단도 남성적 집단, 미분화된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여성적 집단과 양성적 집단은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양성적인 주부가 다른 주부에 비해 자녀관계에서 만족도가 높고, 자아실현성이 높은 주부일수록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이정련(1987)의 결과와 상통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로서 1988년 5월 25일부터 6월 3일에 걸쳐 유치원, 중학교 및 대학교 학부모에 질문지를 배부, 238부를 분석자료로 회수하였다.

이중 현재 남편과 별거하거나 이혼, 사별한 경우를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켜 최종적인 연구대상은 남자성인 90명, 여자성인 130명, 총 220명으로서 이때 남성은 부부의 짝이 아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단축형 BSRI와 결혼만족도척도 두가지이다.

A. Short-Form Bem Sex Role Inventory

이 검사는 본래 Bem(1974, 1977)이 성인의 남성성·여성성 및 사회적 바람직성을 재기 위하여 만든 형용사·형용사구로 이루어진 60항목의 7점척도이었으나, 또다시 Bem(1981)이 이중 30항목을 포함시켜 짧게 만든 형태의 성역할 정체감유형 측정도구이다.

남성성은 사회적으로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성격특성을 말하는데 이는 활동성·적극성과 같은 자기주장적이며 성취지향적인 형용사(구)로 이루어져있다. 여성성은 사회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격특성으로 동조성·수동성과 같은 감정적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이란 피험자가 사회

규범이라는 준거에 비추어 보아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에 답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Chung(1983)의 질문지를 사용한 민경신(1986)의 BSRI를 사용하였다.

B. Marital Satisfaction Scale

본 연구에서는 Roach(1975)의 결혼만족도척도(MSS)가 우리 문화권에서 주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타당화연구로서 실시된 바 있는 이인수(1985)의 48문항을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의 85.4%가 +.40이상의 높은 변별지수를 나타냈으며 내적일치신뢰도 α 계수는 .951, 문항 분석과 요인분석 과정을 거친 신뢰도 α 계수는 각각 .956, .949로 매우 높은 일치도를 나타냈다.

요인분석을 통해 총 50.18%의 설명력을 가지는 6개 요인은 각각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 '부부의 사회적·심리적 동료감' '결혼생활의 애로요인' '부부관계의 불만요인' '부부의 합당한 태도' 및 '결혼생활에 대한 인지'였다.

각 요인에 포함되는 하위변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기대한 결혼생활의 행복, 타생활과 결혼생활의 만족비교, 현재까지의 결혼생활의 성공정도, 현 결혼생활의 결혼전 목표달성에 도움, 결혼생활의 만족, 결혼생활의 가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결혼생활에 만족, 미래의 결혼생활에 대한 희망

2) 부부의 사회적·심리적 동료감-배우자의 격려, 배우자에 대한 관심도, 배우자와의 화목도,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 노력, 배우자와의 애정표현, 배우자와의 의견일치, 배우자와의 공동취미생활, 배우자간의 사고 인지여부, 배우자간의 의사소통

3) 결혼생활의 애로요인-결혼생활에 대한 근심·걱정, 현 배우자의 재선택 不願, 결혼생활의 구속, 결혼생활의 지루함, 결혼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결혼생활 수행의 짜증, 결혼생활 수행노력의 어려움, 배우자에 대한 불만

4) 부부관계의 불만요인-현재 결혼생활의 지속을 不願, 배우자와 상이한 취미로 곤란, 불행한 상관계, 현 배우자와의 결혼을 후회, 현재 결혼생활이 불행,

배우자를 신뢰하기가 어려움

5) 부부의 합당한 태도-배우자 의사표현의 동등한 기회, 배우자간의 평등, 배우자의 공평한 처사, 배우자의 합당한 대우

6) 결혼생활에 대한 인지-배우자 자신에 대한 기대,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상태, 결혼생활 수행능력

3. 채점

각 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점되었다.

A. Short-Form Bem Sex Role Inventory

연구에 포함된 220명의 성인 남녀에게서 얻은 남성성·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를 구해 각각의 성역할을 남성성·여성성·양성성 및 미분화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남성성 및 여성성점수의 중앙치가 각각 4.175점, 4.700점으로 산출되었으므로 대상자들의 성역할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다.

남성성유형 : 남성성점수 > 4.175 · 여성성점수 < 4.700

여성성유형 : 남성성점수 < 4.175 · 여성성점수 > 4.700

양성성유형 : 남성성점수 > 4.175 · 여성성점수 > 4.700

미분화유형 : 남성성점수 < 4.175 · 여성성점수 < 4.700

B. 결혼만족도 척도

응답자의 반응범위는 '정말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척도를 사용하였는 바,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 요인'·'부부의 사회적·심리적 동료감요인'·'부부의 합당한 태도요인'·'결혼생활에 대한 인지요인'은 점수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크며, '결혼생활의 애로요인'과 '부부관계의 불만요인'은 점수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각 연구대상이 받을 수 있는 결혼만족도 총점은 48점-240점이었다.

4.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의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성과 성역할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요인별로 이원변량분석하였다. 둘째, 집단별 유의도를 사후분석하기 위해 Scheffé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결혼만족도에 대한 성(2)과 성역할유형(4)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이원변량분석시 무반응을 제외하여 대상의 수는 215명이었다. 결과는 결혼만족도의 6개 하위요인별로 제시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1. 결혼생활의 전반적 만족 요인

성(2)과 성역할유형(4)에 따른 결혼생활의 전반적 만족요인점수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성·성역할 유형에 따른 결혼생활의 전반적 만족요인 점수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N=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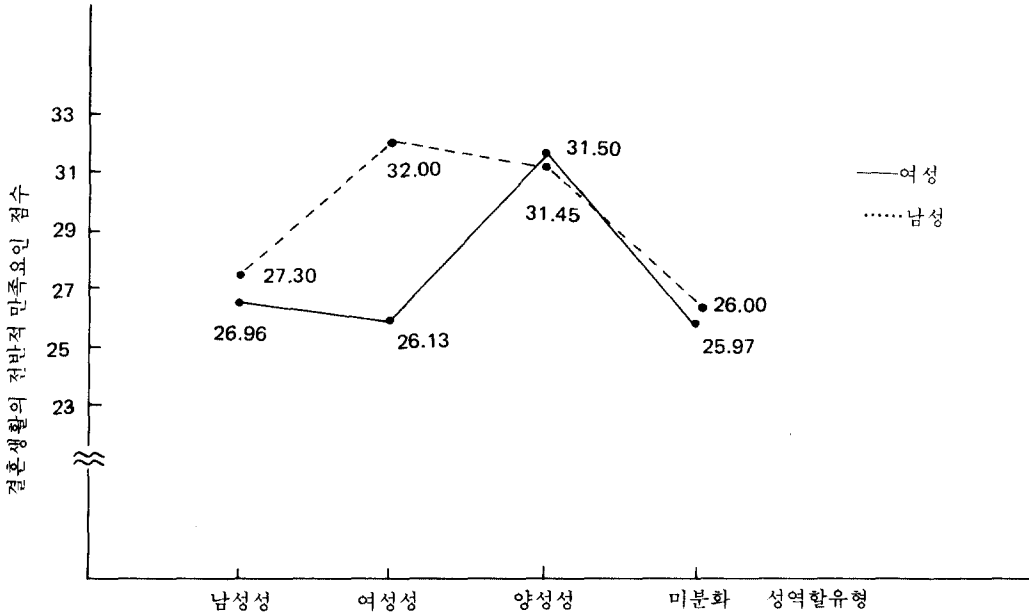
변량원	자승화	df	변추정치	F
주효과	1096.597	4	274.149	7.835**
성	94.178	1	94.178	2.692
성역할유형	935.687	3	311.896	8.914**
2-way 상호작용효과	294.366	3	98.122	2.804*
성 × 성역할유형	294.366	3	98.122	2.804*
오차	7242.776	207	34.989	
전체	8633.740	214	40.345	

*p<.05 **p<.01

<표 2> 결혼생활의 전반적 만족요인 점수의 성역할 유형별 평균비교

	남성성 (N=48) 27.042	여성성 (N=48) 28.333	양성성 (N=62) 31.355	미분화 (N=62) 25.887
남성성			*	
여성성	*		*	*
양성성	*			*
미분화			*	

*p<.05



〈도 1〉 결혼생활의 전반적 만족요인점수에 대한 성·성역할유형간 상호작용효과

〈표 1〉에 의하면 성역할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1% 수준에서, 성과 성역할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5%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효과에 기여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역할유형간 요인점수를 사후검정한 결과, 양성성유형의 만족요인점수는 다른 3유형의 점수보다 의미있게 높은 반면 미분화 남성성유형의 만족요인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표 2〉참조).

한편 성과 성역할유형간 5%수준에서 의미있게 나타난 상호작용효과를 제시하면(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양성성유형의 경우에는 남녀모두의 만족요인점수가 높은 반면 여성성의 경우에는 두드러진 성차를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즉, 남자가 여성적 유형일 때에는 만족요인점수가 높으나, 여자가 여성적 일 때에는 만족요인점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 부부의 심리적·사회적 동료감요인

부부의 사회적·심리적 동료감요인에 대한 결과는

〈표 3〉 성과 성역할 유형에 따른 부부의 사회적·심리적 동료감 이원변량분석 결과(N=215)

변량원	자승화	df	변량 추정치	F
주효과	1304.096	4	326.024	7.411**
성	5.864	1	5.864	.133
성역할 유형	1303.986	3	434.662	9.880**
2-way상호작용효과	266.983	3	88.994	2.023
성×성역할유형	266.983	3	88.994	2.023
오차	9106.903	207	43.995	
전체	10677.981	214	49.897	

*p<.01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성역할유형 주효과에 기여한 집단간의 차이를 사후검정한 결과(〈표 4〉참조) 부부의 심리적·사회적 동료감요인점수는 대상이 양성적 혹은 여성적 성역할유형일때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생활의 애로요인점수에 대해 이원변량분

〈표 4〉 부부의 심리적·사회적 동료감요인 점수의
성역할 유형별 평균비교

	남성성 (N=48) 37.792	여성성 (N=48) 41.271	양성성 (N=62) 42.081	미분화 (N=62) 36.258
남성성		*	*	*
여성성	*		*	*
양성성	*			*
미분화		*	*	

*p<.05

석한 결과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3. 부부관계의 불만요인

성과 성역할유형에 따라 부부관계의 불만요인점수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있다.

〈표 5〉 성·성역할 유형에 따른 부부관계의 불만요인
점수의 이원변량분석(N=215)

변량원	자승화	df	변 추 정치	F
주효과	453.069	4	113.267	4.673**
성	29.379	1	29.329	1.212
성역할 유형	439.139	3	146.380	6.039**
2-way상호작용효과	105.645	3	35.215	1.453
성×성역할유형	105.645	3	35.215	1.453
오차	5017.100	207	24.237	
전체	5575.814	214	26.055	

**p<.01

〈표 5〉에 의하면 성역할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1% 수준에서 의미있게 나타났는 바, 주효과에 기여한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6〉와 같다. 즉 양성적 유형의 불만요인 점수가 다른 3유형의 불만요인점수보다 의미있게 낮은 반면, 대상이 남성성이나 미분화유형에 속할 때 부부관계의 불만요인점수는 의미있게 높다.

부부의 합당한 태도요인점수에 있어서 성과 성역할유형의 효과는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부부관계의 불만요인 점수의 성역할 유형별
평균비교

	남성성 (N=48) 13.709	여성성 (N=48) 11.563	양성성 (N=62) 10.371	미분화 (N=62) 13.677
남성성			*	
여성성	*		*	*
양성성	*			*
미분화			*	

*p<.05

4. 결혼생활에 대한 인지요인

결혼생활에 대한 인지요인점수를 분석한 결과, 성역할유형의 주효과가 1%수준에서 의미있게 나타났다(〈표 7〉). 양성적 유형이 결혼생활에 대해 가장 잘

〈표 7〉 성·성역할 유형에 따른 결혼생활에 대한 인지
요인 점수의 이원변량분석 결과(N=215)

변량원	자승화	df	변 추 정치	F
주효과	99.346	4	24.837	4.645**
성	2.808	1	2.808	.525
성역할 유형	98.953	3	32.984	6.169**
2-way상호작용효과	3.648	3	1.216	.227
성×성역할유형	3.648	3	1.216	.227
오차	1106.727	207	5.347	
전체	1209.721	214	5.653	

**p<.01

〈표 8〉 결혼생활에 대한 인지요인 점수의 성역할 유형
별 평균비교

	남성성 (N=48) 11.292	여성성 (N=48) 11.167	양성성 (N=62) 12.484	미분화 (N=62) 10.903
남성성		*	*	*
여성성			*	
양성성		*		*
미분화			*	

*p<.05

인지하고 있으며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유형으로 갈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인지요인점수는 낮았다(〈표 8〉).

이제까지 결혼만족도척도의 6개 하위요인별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 성역할유형에 의한 주효과가 의미있었다(〈표 1〉〈표 3〉〈표 5〉〈표 7〉).

〈표 9〉 성과 성역할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총점수의 이원변량분석 결과(N=215)

변량원	자승화	df	변량 추정치	F
주효과	1822.760	4	455.690	4.334**
성	50.611	1	50.611	.481
성역할 유형	1694.015	3	564.672	5.370**
2-way상호작용효과	1105.987	3	368.662	3.506*
성×성역할유형	1105.987	3	368.662	3.506*
오차	21766.667	207	105.153	
전체	24695.414	214	115.399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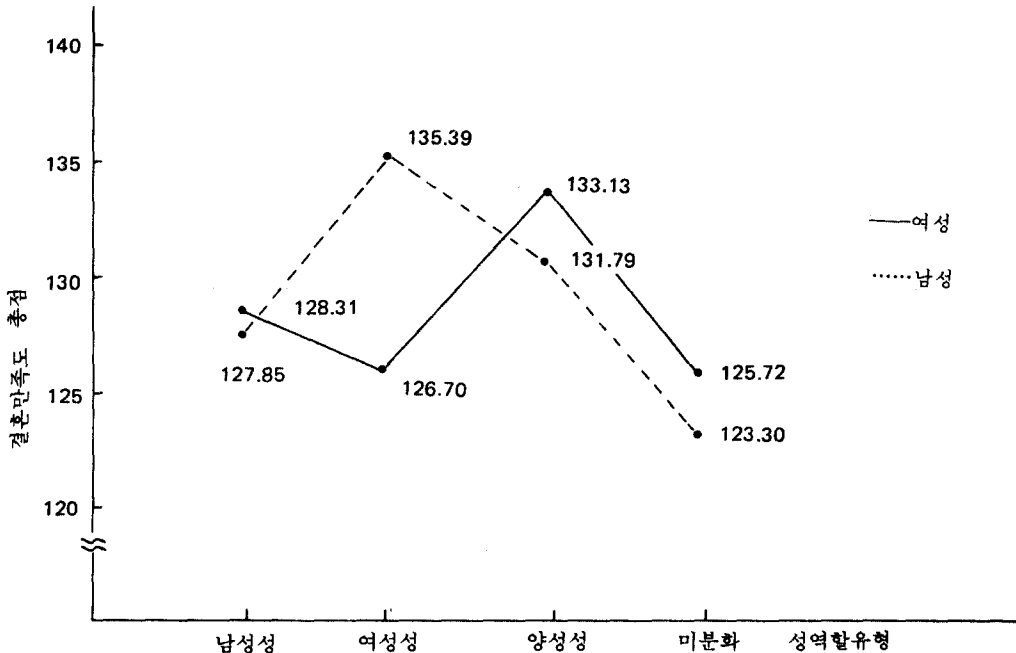
5. 성과 성역할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총점 비교

성(2)과 성역할유형(4)에 따라 결혼만족도 총점을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성역할유형에 따른 주효과 및 성과 성역할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각각 1%와 5% 수준에서 의미있게 나타났다(〈표 9〉). 주효과에 기여한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역할유형간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결혼만족도는 양성성의 경우와

〈표 10〉 결혼만족도 총점의 성역할 유형별 평균비교

	남성성 (N=48) 128.750	여성성 (N=48) 129.354	양성성 (N=62) 132.419	미분화 (N=62) 124.613
남성성			*	*
여성성			*	*
양성성				*
미분화			*	

*p<.05



〈도 2〉 결혼만족도 총점수에 대한 성·성역할유형간 상호작용효과

미분화유형일때 각각 다른 3집단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양성적 유형이 결혼생활에 가장 높은 만족을 보인 반면 미분화 유형의 결혼만족도는 가장 낮았다(<표 10> 참조).

한편 5%수준에서 의미있게 나타난 성과 성역할유형간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그림 2)에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2)는 양성적 유형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반면 미분화유형의 결혼만족도는 가장 낮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앞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그들의 남성적·양성적·미분화 유형 모두에서 같은 유형의 남성들보다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인 반면, 여성성유형에서 여성적 남성보다 훨씬 낮은 만족도를 보임은 주목할 만하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성과 성역할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2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이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별 이원변량분석 결과에서 볼 때 '결혼생활의 전반적 만족'부부의 사회적·심리적 동료감'부부관계의 불만'결혼생활에 대한 인지'요인에서 성역할유형에 따른 주효과만이 1%수준에서 의미있게 나타났을 뿐 어떠한 하위요인점수에 대해서도 성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볼 때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생물학적 성 자체가 아니라 그가 자신을 남성적 또는 여성적으로 보는 정도(이진환, 1979) 즉 어떠한 성역할정체감을 가졌느냐의 여부라고 할 수 있겠다.

성역할유형 주효과에 기여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5%수준에서 Schè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양성적 유형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미분화유형일 때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Spence (1975)와 Bem(1974, 1975) 및 우리나라의 민경신(1986), 이정련(1987)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각각의 성역할유형이 어떠한 특성을

을 지니며 어떠한 이유로 인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또다른 연구가 요청된다.

특히 '부부의 합당한 태도'결혼생활의 애로' 요인에서는 성과 성역할에 따른 효과가 없었는데 이는 '부부의 합당한 태도' 요인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과 '결혼생활의 애로'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좀 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탓으로 사료된다.

결혼만족도척도의 하위요인들에서 볼 수 있는 결과는 결혼만족도 총점에 대한 이원 변량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결혼생활의 전반적 만족' 요인과 결혼만족도 총점에서 나타난 성과 성역할유형의 상호작용효과는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여, 남성성·양성성·미분화유형의 3집단에서는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여성성의 경우에는 특기할 만한 성차가 나타났다((그림 1)(그림 2)참조).

즉 남성이 여성적일 때에는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여성이 여성적인 경우의 만족도는 낮았다. 이는 김명자(1985)의 결과와는 상반되고, 정승혜(1988), 최규련(1984)의 결과와는 일치하는 바, 남성이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가질 때와 여성이 전통적 태도를 갖지 않을 때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남녀 모두가 생물학적 성에 얽매인 극단의 성역할정체감을 가질 때 그들의 결혼만족도는 낮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여성적 유형일 때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온 사실은 민경신(1986), 박태은(1983), 이정련(1987)등의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연령이나 교육수준 직업유무등의 변인들과 함께 다시 검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성과 연령층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녀가 부부로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해석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도구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 BSRI의 경우, 국내에서 여러번 사용된 바 있으나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도구이므로 문화적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서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성역할과 결혼만

족도의 관계를 비교함에 있어 남녀 모두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이 분야 연구들이 주부들만을 대상으로 한 데 반해 본 연구는 보다 폭넓은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전통성여부에 따라 성역할정체감유형을 도구로 삼아 점차로 증가하는 '심리적 양성성'에 대한 견해에 부응하여 이를 지지하는 실증적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보다 진전된 추후연구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제 변인을 통제한 고른 표집을 통해 성역할유형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성역할이 생활주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Abrahams, Feldman과 Nash(1978), Davidson과 Gordon(1979)등에 비추어 볼 때 폭넓은 다수의 연령층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적합한 측정도구의 개발, 표준화 작업이 요청된다.

2. 결 론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와 얻어진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결혼만족도는 성역할유형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바, 양성성유형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미분화유형의 만족도는 가장 낮다.

2) 남성성·양성성·미분화유형 모두에서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성유형에서는 남성이 여성적일 때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인 반면, 여성은 여성적 특성이 강할 때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참 고 문 헌

금혜선. (1984). 결혼만족도에 따른 personality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명자. (1985).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4,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소, 139-166.
 김혜선. (1982). 결혼만족도에 관한 문헌적 고찰. 이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민경신. (1986). 우리나라 주부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영신. (1984). 현대사회와 남녀평등. 생활과 교양: 조화로운 남녀관계의 인간학, 연세대학교 여학생처, 7-12.
 박태은. (1983).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간의 관계: 도시주부를 중심으로. 가정관리학회지, 1(2), 한국가정관리학회, 139-150.
 이인수. (1986). 결혼만족도척도의 타당화연구: Roach, Frazier, Bawden의 Marital Satisfaction Scale.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재연. (1985). 성역할 사회화 이론의 최신경향. 아세아여성연구, 24,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소, 167-175.
 이정련. (1983). 남편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전주지역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1, 대한가정학회, 131-137.
 이정련. (1987).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 대한가정학회, 105-119.
 이주옥. (1982). 지역형태에 따른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의 성역할 유형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8, 한국아동학회, 31-48.
 이진환. (1979). 성역할사회화의 기제 및 매개자. 연구노우트, 8(5),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이형실. (1985).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태도와 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승혜. (1988).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규련. (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22, 대한가정학회, 91-102
 Bem, S.L. (1975). Sex Role Ado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34-643.
- Bem, S.L., Martyna, W. & Watson, C. (1976). Sex typing and Androgyny: Further Explorations of the Expressive Domain. *J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1016-1023.
- Rhyme, D. (1981). Bases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n and Women. *J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941-955.
- Spence, J.T., Helmreich, R. & Stapp, J. (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itud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29-39.